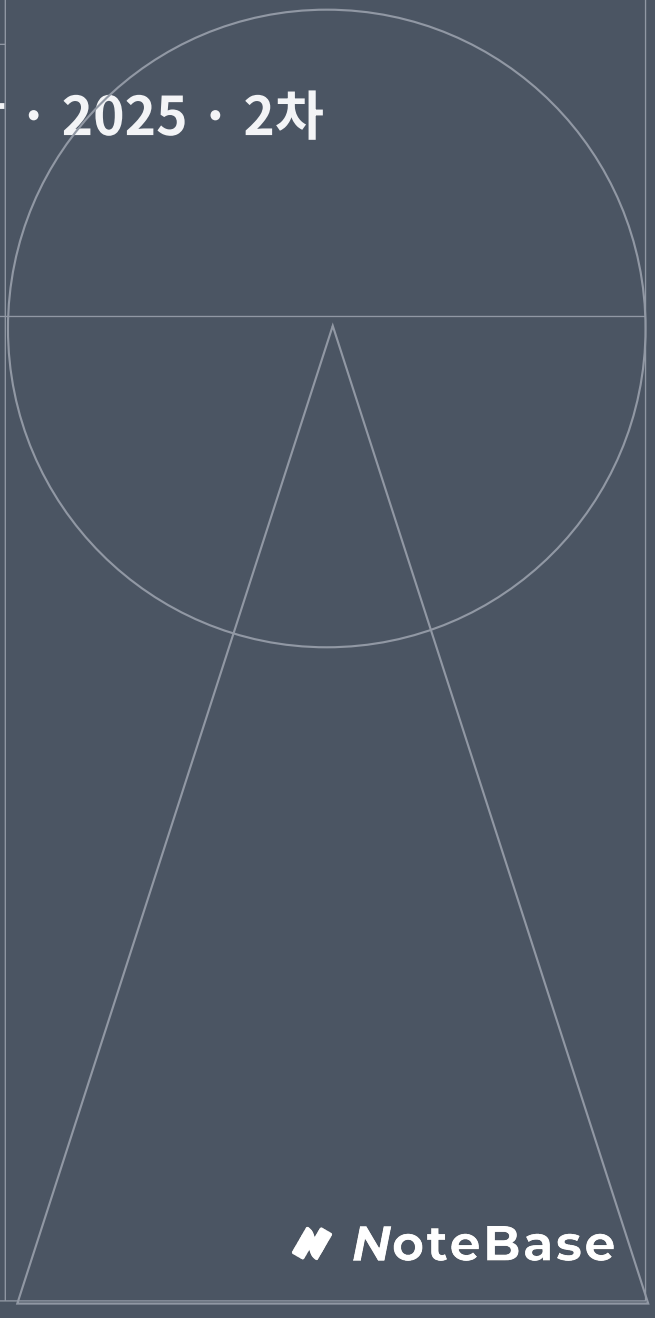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5 · 2차

문 1. 생애 발달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설계로 다음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은?

◯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해 준다.
◯ 개인적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발달적 변화에서 연령에 따른 효과를 분명히 밝혀 주지는 못한다.
◯ 다른 설계에 비해 시간과 참가자 규모 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① 계열설계(sequential design)
② 미시발생설계(microgenetic design)
③ 종단설계(longitudinal design)
④ 횡단설계(cross-sectional desig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달 연구설계 중 횡단설계, 종단설계, 계열설계, 미시발생설계를 개인 발달 정보 제공 여부, 시간 효율성, 연령효과 분리 가능성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횡단설계는 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비교하는 설계로 연령 집단 간 차이는 볼 수 있지만 개인의 발달 궤적은 볼 수 없고 코호트 효과가 섞일 수 있다.
종단설계는 같은 개인을 오랜 기간 반복 추적하는 설계로 개인적 발달 변화는 잘 보여 주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계열설계는 횡단설계와 종단설계를 결합한 설계로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를 더 잘 구분하려는 방식이다.
미시발생설계는 변화가 일어나는 짧은 시기를 촘촘히 관찰하여 변화 과정의 미세한 기제를 파악하는 설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계열설계'라는 선택이다.
계열설계는 여러 연령 집단을 종단적으로 함께 추적하여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를 더 분명히 구분하려는 설계이다. 제시문처럼 연령효과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개인 발달 정보도 주지 못하는 설계와는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 특징 묶음은 횡단설계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미시발생설계'라는 선택이다.
미시발생설계는 변화가 일어나는 짧은 구간을 매우 빈번하게 측정하여 개인의 변화 과정과 기제를 자세히 본다. 따라서 개인적 발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개인 발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연령 집단 비교에 초점을 두는 설계는 횡단설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종단설계'라는 선택이다.
종단설계는 같은 사람을 장기간 추적하므로 개인적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발달 변화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시간과 참가자 관리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한 시점에 여러 연령 집단을 조사해 효율적인 설계는 횡단설계이다.

④ O
횡단설계는 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비교하므로 연령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 같은 개인을 추적하지 않으므로 개인적 발달 정보는 주지 못한다. 또한 연령 차이에 코호트 효과가 섞일 수 있어 발달 변화에서 연령 자체의 효과를 분명히 분리하기 어렵다. 한 번의 조사로 여러 집단을 비교할 수 있어 시간과 참가자 규모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도 제시문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발문에 '발달의 변화 과정'이 들어가 있어 종단설계를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결정 단서는 '개인적 발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와 '시간과 참가자 규모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표현이다. 이 두 문구는 같은 개인을 추적하지 않는 횡단설계를 가리킨다. 여기에 '연령에 따른 효과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는 문구는 코호트 효과 때문에 횡단설계의 한계를 묻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시점, 여러 연령 집단 비교, 개인 발달 궤적 파악 불가, 조사 효율성이 함께 나오면 횡단설계로 판단한다. 같은 사람을 오래 추적하면 종단설계이고, 짧은 기간에 촘촘히 반복 측정하면 미시발생설계이며, 횡단과 종단을 결합해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를 가려내려 하면 계열설계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횡단은 한 시점 여러 연령 비교, 종단은 같은 사람 장기 추적, 계열은 둘의 결합, 미시발생은 짧고 촘촘한 변화 추적이다.

NoteBase

문 2. 다음 현상에 해당하는 이론은?

A는 공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한다. A가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 A의 어머니는 A에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을 하고 싶은 A는 공부를 먼저 한다.

① 조성(shaping)
② 추동감소 이론(drive-reduction theory)
③ 프리맥의 원리(Premack principle)
④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행동을 선호도가 낮은 행동의 강화물로 사용하는 원리를 묻는다.

핵심 정리

조성: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 절차이다.
추동감소 이론: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생리적 추동을 줄이는 것이 강화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프리맥의 원리: 자주 하거나 더 선호하는 행동이 덜 선호하는 행동의 강화물로 작용한다는 원리이다.
효과의 법칙: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은 반응은 강해지고 불쾌한 결과를 낳은 반응은 약해진다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성은 목표행동에 이르는 근사 반응을 차례로 강화하는 절차이다. 이 사례는 공부를 조금씩 근접시키는 단계적 강화가 아니라, 게임이라는 선호 행동을 공부의 보상으로 건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조성'이다. 올바르게는 '프리맥의 원리'이다.
② X: 추동감소 이론은 생리적 결핍에서 생긴 추동을 줄이는 것이 강화라고 본다. 이 사례의 동인은 배고픔이나 갈증의 감소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은 선호 행동의 접근 기회이다. 틀린 표현은 '추동감소 이론'이다. 올바르게는 '프리맥의 원리'이다.
③ O: 평소 더 많이 하는 게임 행동이 덜 하는 공부 행동의 강화물로 쓰였다. '공부를 먼저 하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바로 고빈도 행동을 저빈도 행동에 연결한 프리맥의 원리이다.
④ X: 효과의 법칙은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 반응이 강화된다는 넓은 원리이다. 이 사례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막연한 보상 일반이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행동 자체를 강화물로 쓰는 원리이다. 틀린 표현은 '효과의 법칙'이다. 올바르게는 '선호 행동을 강화물로 쓰는 프리맥의 원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효과의 법칙도 보상 뒤 행동 증가를 설명하므로 ④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부 배열이며, 이는 선호 행동을 강화물로 쓰는 프리맥의 원리를 직접 묻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면 덜 좋아하는 행동을 먼저 한다'는 구조가 보이면 프리맥의 원리를 먼저 떠올린다. 목표행동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 조성이고, 생리적 결핍 해소가 핵심이면 추동감소 이론이다.

암기 포인트

프리맥의 원리 = 많이 하고 싶은 행동으로 덜 하고 싶은 행동을 강화한다.

NoteBase

문 3.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은?

총기규제에 대한 견해에 두 사람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A는 총기규제를 지지한다. 그는 총기 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뉴스와 동조자를 찾는다. 총기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한편 K는 총기규제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뉴스를 찾는다. 총기사고에 대한 뉴스는 자신의 현재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①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② 기능적 고착(functional fixedness)

③ 마음갖춤새(mental set)

④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신의 기존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찾고 해석하는 확증편향과 다른 인지 개념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가용성 휴리스틱은 쉽게 떠오르는 사례를 근거로 빈도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다. 기능적 고착은 사물의 익숙한 용도에만 묶여 새로운 사용법을 떠올리지 못하는 경향이다. 마음갖춤새는 이전에 익숙했던 해결 방식에 묶여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보려는 경향이다. 확증편향은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는 더 찾고, 모호한 정보도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는 경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용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사례 때문에 어떤 사건의 빈도나 위험을 크게 또는 작게 판단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은 단순히 총기 사고 소식이 잘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뉴스와 동조자를 선택적으로 찾고 그 뉴스를 자신의 의견에 맞게 해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개념 선택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확증편향이다.
② X: 기능적 고착은 물건을 익숙한 기능으로만 보는 문제 해결상의 제약이다. 총기규제에 대한 태도, 뉴스 탐색, 해석 방식은 사물의 용도 고착과 무관하다. 틀린 표현은 기능적 고착이라는 개념 적용이다. 올바르게는 기존 신념에 맞는 정보 선택과 해석을 뜻하는 확증편향이다.
③ X: 마음갖춤새는 예전에 성공한 방식이나 익숙한 접근법을 계속 적용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주로 문제 해결 전략의 경직성을 가리킨다. 제시문은 문제 해결 전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찾고 해석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마음갖춤새라는 개념 적용이다. 올바르게는 확증편향이다.
④ O: A와 K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지만, 둘 다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뉴스와 사람을 찾고 총기 사고 뉴스를 자기 입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이는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 주목하고 반대 증거는 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의 전형적 모습이다.

오답 포인트

가용성 휴리스틱과 확증편향을 혼동하기 쉽다. 쉽게 떠오르는 사례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면 가용성 휴리스틱이고, 애초에 자기 입장에 맞는 정보만 찾고 해석하면 확증편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에서 기존 의견이나 신념이 먼저 제시되고, 그 뒤에 그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탐색하거나 모호한 자료를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면 확증편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확증편향은 믿는 쪽만 찾고 믿는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NoteBase

문 4.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험연구에서 이중 은폐 절차(double-blind observation)는 연구 참가자가 어떤 처치를 받는지 연구 진행자는 알지 못한다.
ㄴ. 실험연구에서 독립변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속변인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오염변인(confounding variable)이라 한다.
ㄷ. 상관연구법(correlational method)에서 두 변인 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이 있다는 것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중 은폐 절차, 오염변인, 상관과 인과의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중 은폐 절차는 참가자와 연구 진행자 모두가 처치 조건을 모르게 하여 기대효과와 실험자 편향을 줄이는 절차이다.
오염변인은 독립변인과 구분되지 않은 채 종속변인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어 인과 해석을 흐리는 변인이다.
상관연구법은 두 변인이 함께 변하는 정도를 밝히는 방법일 뿐, 인과 방향까지 확정하지는 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과 ㄴ만 옳다는 판단이 맞다. ㄱ은 이중 은폐 절차의 핵심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이중(double)'이라는 말 그대로 연구 참가자도 자신이 어떤 처치를 받는지 모르고, 동시에 연구 진행자도 누가 어떤 처치를 받는지 모른다는 점, 즉 참가자와 진행자 양쪽 모두가 처치 조건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에 제시된 '연구 진행자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이 양면 가운데 진행자 쪽을 가리킨 것으로 타당하다. ㄴ은 독립변인과 분리되지 않은 채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오염변인이라 한 것으로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ㄷ을 포함한 점이다. 상관연구에서 높은 양의 상관은 두 변인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뜻할 뿐,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 ㄴ만 옳다.
3번: X. 틀린 부분은 ㄷ을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점이다. ㄱ은 이중 은폐 절차의 설명으로 옳고, ㄷ은 상관을 인과로 바꿔 말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만 옳다.
4번: X. 틀린 부분은 ㄷ까지 모두 옳다고 본 점이다. ㄷ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한 진술이라서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만 옳다.

오답 포인트

이중 은폐를 단일 은폐와 혼동하거나, 상관관계가 크면 곧바로 인과관계라고 넘겨짚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ㄷ의 '원인이 된다'라는 표현이 상관과 인과를 뒤바꾼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방법 문항은 먼저 누가 처치 정보를 모르는지,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인이 독립변인과 뒤섞였는지, 두 변인의 관련성이 인과까지 뜻하는지를 순서대로 구분하면 판단이 선명해진다.

암기 포인트

이중 은폐는 참가자와 연구자 모두 모름, 오염변인은 독립변인과 뒤섞임, 상관은 인과가 아니다.

NoteBase

문 5.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 작동된 사례가 다른 하나는?

①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한다.

② 무엇이 상대방을 화나게 했는지 파악한다.

③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④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고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사례가 타인의 믿음, 감정, 선호를 추론하는 마음이론의 작동인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각 선지는 모두 대인관계 장면이지만, 핵심은 행동의 대상이 타인의 마음상태인지 여부이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를 고려하면 마음이론의 사례이고, 자신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마음이론이 작동한 사례가 아니다.

핵심 개념

마음이론은 타인도 자신과 다른 믿음, 의도, 감정, 선호를 가질 수 있음을 추론하는 능력이다. 적용 요건은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가 타인의 정신상태 표상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데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상대방의 반응, 화난 이유, 잘못된 믿음처럼 타인의 내적 상태를 추론하면 마음이론에 해당하고, 자기 취향을 그대로 상대에게 투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해석과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다. 타인의 관점을 머릿속에 표상하므로 마음이론이 작동한 사례이다.
② O: 무엇이 상대방을 화나게 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 상태와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의 정서 상태와 그 유발 원인을 읽어 내는 것은 마음이론의 감정 귀인(emotion attribution)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마음이론이 작동한 사례이다.
③ O: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론의 대표적 내용이다. 타인이 현실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므로 마음이론이 작동한다.
④ X: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고르는 것은 상대의 선호를 추론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고른다"이고, 올바르게는 "상대방이 좋아할 것으로 고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도 대인관계 장면이어서 타인을 고려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 기준이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마음이론은 타인과 관련된 행동이라는 외형보다 타인의 정신상태를 실제로 추론했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문항에서는 먼저 판단 기준이 누구의 마음인지 확인하면 된다. 상대의 믿음, 감정, 의도, 선호를 추론하면 마음이론이고, 자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마음이론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마음이론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고, 자기 취향을 투사하는 것은 마음이론이 아니다.

NoteBase

문 6.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은?

영화감독들은 한 장면의 어떤 부분을 다른 날에 촬영해도 구름의 형태, 배경 소품 혹은 연기자의 복장에서 차이를 알아채는 관람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오래전에 발견했다.

① 맹시(blindsight)
② 맹점(blind spot)
③ 변화맹(change blindness)
④ 시각무시(visual neglec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면의 일부가 바뀌어도 관찰자가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은 한 장면의 일부를 다른 날 촬영해도 구름 형태, 배경 소품, 복장 차이를 관객이 잘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시각 장면 안에 변화가 실제로 있었지만 관찰자가 그 변화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변화맹은 시각 장면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그 변화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 개념의 핵심은 자극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장면 속 변화 탐지가 실패한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관객이 장면 전체를 대강 보고도 세부 변화는 놓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핵심은 시야 결손이나 뇌손상보다 장면 변화에 대한 탐지 실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맹시는 시각피질 손상 등으로 인해 자신은 보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일부 시각 정보에는 반응하는 현상이다. 이 사례는 무의식적 시각 반응이 아니라 장면 변화 자체를 못 알아차리는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맹시'이며, 올바르게는 '변화맹'이다.
② X: 맹점은 망막의 시신경 유두 부위처럼 정상적으로 시각 수용기가 없는 부분을 뜻한다. 이 사례는 눈의 구조적 빈칸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오류 같은 변화를 놓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맹점'이며, 올바르게는 '장면 변화 탐지 실패인 변화맹'이다.
③ O: 변화맹은 장면의 일부가 바뀌어도 사람이 그 차이를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영화의 연결 장면에서 소품, 구름, 복장 변화가 있어도 관객이 잘 모르는 현상은 변화맹에 정확히 해당한다.
④ X: 시각무시는 보통 우측 두정엽 손상 등으로 반대쪽 공간을 무시하는 신경심리학적 장애이다. 이 사례는 특정 공간 반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전반의 변화 자체를 놓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시각무시'이며, 올바르게는 '변화맹'이다.

오답 포인트

오답은 '못 본다'는 공통 느낌만 보고 고르면 발생한다. 맹시와 맹점은 시각 입력 자체의 결손이나 특수한 처리 문제이고, 시각무시는 공간 한쪽에 대한 무시이다. 이 문항의 단서는 '차이를 알아채는 관객이 별로 없다'는 표현이므로 변화 탐지 실패라는 점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데도 잘 못 알아챈다'가 나오면 먼저 변화맹을 떠올린다. 반대로 '보인다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맞힌다'는 맹시, '망막의 빈 부분'은 맹점, '한쪽 공간을 무시한다'는 시각무시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변화맹은 보지 못함이 아니라 바뀐 것을 놓침이다.

NoteBase

문 7.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문화인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아동은 부모, 또래, 교사 및 기타 성인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인지 발달을 이루어 간다.
ㄴ. 아동의 인지 발달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아동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진행된다.
ㄷ. 아동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영역과 도움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 사이의 간격인 근접발달영역을 지니고 있다.
ㄹ. 아동이 겪는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지 발달 단계는 모든 문화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인지이론과 피아제의 인지발달관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비고츠키: 인지 발달은 부모, 또래, 교사 같은 유능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문화적 도구를 통해 촉진되며 근접발달영역이 핵심이다. 근접발달영역에서 유능한 타인이 아동의 현재 수준에 맞추어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이 성장하면 도움을 점차 거두어 가는 지원을 비계(scaffolding)라고 한다.
피아제: 아동은 스스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구성하고 인지 발달은 비교적 보편적인 단계로 진행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은 부모, 또래,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비고츠키의 관점과 맞다. ㄷ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수준 사이의 간격을 근접발달영역으로 설명하므로 맞다. 이때 유능한 타인이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제공하는 단계적 도움을 비계(scaffolding)라고 하며, 이는 근접발달영역과 직접 연결되는 비고츠키의 핵심 개념이다.
2번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리다. '모든 문화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지 발달 단계'라는 표현은 피아제의 단계이론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인지 발달이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3번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아동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앞세우는 표현은 피아제 쪽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유능한 타인의 안내와 협동, 비계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4번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ㄴ은 사회적 지도보다 자발적 탐색을 강조해 비고츠키와 맞지 않고, ㄹ은 문화 간 보편적 단계를 전제해 역시 비고츠키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가 인지 발달의 핵심 조건이라고 본다.

오답 포인트

ㄴ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과 ㄹ의 '모든 문화에서 거의 보편적 단계'가 그럴듯해 보여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둘 다 비고츠키보다 피아제의 색채가 강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고츠키 문항은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문화, 근접발달영역 같은 단서를 먼저 찾는다. 반대로 자발적 발견학습이나 보편적 단계가 중심이면 피아제 쪽 진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고츠키는 사회·언어·문화·근접발달영역, 피아제는 자발적 구성·보편적 단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두개 자기 자극(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뇌의 특정한 부위의 활동 정도를 일시적으로 조작하고, 수반된 인지 기능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②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phy)는 혈액 속 산소를 포함한 헤모글로빈의 분포를 통해 뇌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③ 손상법(lesion study)은 뇌의 특정 영역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각, 행동, 인지 및 정서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④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법(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은 뇌 활동 변화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능물질에 피검자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지신경과학의 대표적 연구 방법이 무엇을 측정하거나 조작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 특정 뇌 부위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그 부위의 기능을 인과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EEG는 두피 전극으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기록하는 방법이다. 손상법은 특정 뇌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기능 변화를 통해 그 영역의 역할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PET는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해 뇌의 대사 활동이나 혈류 변화를 위치 정보와 함께 파악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 특정 뇌 부위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촉진하거나 방해하고, 그에 따라 인지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다. 특정 부위를 직접 조작해 기능을 추론한다는 설명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혈액 속 산소를 포함한 헤모글로빈의 분포"이다. 이는 EEG의 원리가 아니라 주로 fMRI의 BOLD 신호처럼 혈류와 산소화 변화를 이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EEG는 실제로는 두피에 부착한 전극으로 뉴런 집단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3번: O. 손상법은 특정 뇌 영역이 손상된 뒤 지각, 행동, 인지, 정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그 영역의 기능을 추론한다. 선지의 설명이 손상법의 핵심을 정확히 말한다.
4번: O. PET는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해 뇌 활동 변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설명한 내용이 맞다.

오답 포인트

2번은 EEG와 fMRI 또는 PET 계열의 혈류·대사 측정 원리를 뒤섞은 선지이다. 측정 대상이 전기 신호인지, 혈류·산소화·대사 변화인지가 연구 방법 구분의 핵심인데 이 지점을 바꾸어 놓으면 쉽게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 방법 문제가 나오면 먼저 무엇을 측정하거나 조작하는지를 붙여서 본다. TMS는 자기 자극으로 활동을 조작하고, EEG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며, 손상법은 손상 후 기능 변화를 관찰하고, PET는 방사성 추적자로 대사 활동의 위치를 본다.

암기 포인트

EEG는 전기, PET는 방사성 추적자, TMS는 자기 자극, 손상법은 손상 후 결손이다.

NoteBase

문 9.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타당도도 높아진다.
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는가를 뜻한다.
ㄷ. 검사로 획득된 점수의 범위가 좁을수록 그 검사의 예언 (predictive) 타당도는 낮아진다.
ㄹ. 검사-재검사 또는 반분 검사 간의 점수가 대체로 일치한다면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타당도의 기본 의미와 신뢰도와의 관계, 그리고 점수 범위 제한이 예언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는 속성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재는가의 정도이다.
신뢰도는 검사 점수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가의 정도이다.
예언타당도는 현재의 검사 점수가 미래의 수행이나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뜻한다.
타당도와 신뢰도는 관련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①은 ㄱ, ㄷ의 조합인데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잘못된 표현은 "신뢰도가 높을수록 타당도도 높아진다"이다. 실제로는 신뢰도가 높아도 엉뚱한 특성을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도가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ㄷ은 점수 범위가 좁아지면 준거와의 상관이 줄어 예언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옳다.
2번 X: ②는 ㄱ, ㄹ의 조합인데 ㄱ과 ㄹ이 모두 틀려서 오답이다. ㄱ은 위와 같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동일한 방향의 자동 관계로 본 점이 틀렸다. ㄹ의 잘못된 표현은 "검사-재검사 또는 반분 검사 간의 점수가 대체로 일치한다면 타당도가 높다"이다. 실제로 검사-재검사와 반분 검사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3번 O: ③은 ㄴ, ㄷ의 조합이며 둘 다 옳다. ㄴ은 타당도의 핵심 정의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는가를 묻는다. ㄷ은 옳은 진술이다. 점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은 피험자들의 검사 점수 변산(분산)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렇게 변산이 제한되면 검사 점수와 준거 사이의 상관계수가 작아지는데 이를 범위 제한 효과(restriction of range)라고 한다. 예언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준거 간 상관으로 추정되므로, 범위 제한 효과로 상관이 작아지면 예언타당도도 낮아진다.
4번 X: ④는 ㄴ, ㄹ의 조합인데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ㄴ은 타당도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다. 그러나 ㄹ은 신뢰도 검증 결과를 곧바로 타당도로 해석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검사-재검사나 반분 검사 간 점수가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다고 곧바로 연결하거나, 검사-재검사·반분 검사를 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또한 점수 범위가 좁아지면 상관이 약해질 수 있다는 범위 제한 효과를 놓치면 ㄷ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타당도는 "무엇을 제대로 재는가",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되게 재는가"로 분리한다. 그다음 검사 점수의 범위가 제한되면 준거와의 상관이 낮아져 예언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 범위 제한은 예언타당도 하락이다.

NoteBase

문 10.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암순응 과정 중 막대세포(rod cell)가 자신의 최대 암순응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원뿔세포(cone cell)보다 짧다.

② 망막의 중심와(fovea)에는 원뿔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시각 해상도를 높인다.

③ 동공(pupil)은 빛의 양에 따라 반응하는 수정체(lens)에 의해 그 크기가 달라진다.

④ 빛은 망막에 있는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 중 원뿔세포와 막대세포로 이루어진 시각 수용기층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기능 차이, 중심와의 구조, 동공 조절 주체, 망막에서의 빛 진행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의 밝기 감지에 특화된 수용기이고 색 지각과 해상도는 약하다. 원뿔세포는 밝은 곳에서 색과 세부 형태를 정밀하게 구별하는 수용기이며 중심와에 특히 밀집한다. 동공 크기는 수정체가 아니라 홍채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조절된다. 사람의 망막은 뒤집힌 구조이므로 빛은 신경절세포층 등을 지난 뒤 광수용기인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에 도달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막대세포는 최종적으로 더 높은 감도를 보이지만 최대 암순응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은 원뿔세포보다 더 길다. 틀린 표현은 "원뿔세포보다 짧다"이다. 올바르게는 "막대세포는 원뿔세포보다 늦게 최대 암순응 수준에 도달한다"이다.
2번: O. 중심와는 원뿔세포가 매우 촘촘하게 분포하는 부위이므로 시각 해상도가 가장 높다. 색과 세부 형태를 정밀하게 보는 기능과 연결된다.
3번: X. 틀린 표현은 "수정체(lens)에 의해"이다. 동공 크기는 빛의 양에 따라 홍채가 조절하며, 수정체는 초점 조절에 관여한다. 올바르게는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홍채의 작용으로 그 크기가 달라진다"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가장 먼저 도달한다"이다. 사람의 망막에서는 빛이 다른 신경세포층을 먼저 통과한 뒤 광수용기층에 도달한다. 올바르게는 "빛은 망막의 다른 세포층을 지난 뒤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있는 시각 수용기층에 도달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막대세포가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암순응 속도와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3번은 동공과 수정체를 함께 눈의 조절 기관으로 묶어 외우면 흔들리고, 4번은 광수용기가 빛을 받는 세포라는 이유만으로 빛이 가장 먼저 닿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각계 선지는 수용기의 기능, 위치, 조절 주체, 빛의 진행 순서를 분리해서 본다. 어두운 곳 적응은 막대세포의 최종 감도와 적응 시간으로 나누고, 중심와는 원뿔세포, 동공은 홍채, 초점은 수정체, 망막의 빛 경로는 신경세포층 후 광수용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심와는 원뿔세포, 암순응의 최종 우세는 막대세포, 동공 조절은 홍채, 빛은 광수용기에 바로 닿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처벌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처벌받은 행동은 억제될 수 있지만, 소거되지 않는다.
ㄴ. 특정 행동이 언제 강화를 받을지 변별하지 못하게 된다.
ㄷ.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관찰된 공격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ㄹ. 처벌을 가한 사람이나 처벌받은 장소가 공포와 연합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작적 조건형성에서 처벌의 한계와 부작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처벌은 어떤 행동 뒤에 혐오자극을 제시하거나 선호자극을 제거하여 그 행동의 미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절차이다.
처벌의 대표적 단점은 행동을 잠시 억누를 뿐 대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공격성 모델링이나 공포 같은 정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화는 행동의 발생을 늘리는 절차이므로 '언제 강화를 받을지 변별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처벌의 대표적 단점을 설명한 문장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고 ㄷ도 맞지만, ㄹ도 처벌의 대표적 단점이므로 이 선택지는 범위가 부족하다.
올바르게는 ㄱ,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X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ㄴ의 '언제 강화를 받을지'는 강화 변별의 문제이지 처벌의 대표적 단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ㄴ을 빼고 ㄱ, ㄷ, ㄹ을 포함해야 한다.

③ X
ㄱ과 ㄹ은 맞지만 ㄴ을 포함한 점이 틀리다. 처벌의 단점은 행동 억제의 일시성, 공격성 증가, 공포 연합처럼 처벌의 부작용으로 설명된다.
올바르게는 ㄴ 대신 ㄷ을 포함한 ㄱ, ㄷ, ㄹ이다.

④ O
ㄱ은 처벌이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그 행동 자체를 소거하는 학습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말하므로 맞다.
ㄷ은 처벌 장면이 공격적 문제 해결을 모델링하여 관찰된 공격 행동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말하므로 맞다.
ㄹ은 처벌자나 처벌 장소가 공포와 연합되어 회피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ㄴ이 함정이다. 처벌 문항인데 선지 안에 '강화'를 끼워 넣어 강화와 처벌의 개념을 혼동하게 만든다. 또한 ①은 ㄱ과 ㄷ이 맞다는 점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ㄹ의 공포 연합까지 함께 떠올려야 정답에 도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처벌의 단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행동을 없애기보다 억누른다는 점, 공격성이나 공포 같은 정서적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 바람직한 대안 행동을 직접 가르치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반대로 강화 시점이나 강화량처럼 강화 절차 자체를 설명하는 표현은 우선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처벌은 잠재우지만 가르치지 못하고, 공격성과 공포를 남길 수 있다.

NoteBase

문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근 이사를 온 A 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천장을 두드렸고 이에 잠시 조용해졌다. 윗집의 층간소음이 들려올 때면 A 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도 천장을 두드렸고 이에 또 조용해졌다. 어느 날, A 씨가 외출한 사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A 씨의 딸이 천장을 두드렸다.

ㄱ. A 씨의 천장 두드리는 행동은 윗집의 층간소음 발생 행동을 부적으로 처벌했다.
ㄴ. 윗집의 층간소음 발생 행동은 A 씨의 천장 두드리는 행동을 부적으로 강화했다.
ㄷ. A 씨 딸의 행동은 관찰학습의 결과였다.
ㄹ. 층간소음은 A 씨의 행동에 대한 무조건 자극(US)이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에 조작적 조건형성과 관찰학습 개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 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이 들리면 천장을 두드렸고, 그 결과 소음이 잠시 멈췄다.
A 씨의 행동은 혐오적인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기능을 했다.
딸은 A 씨가 그렇게 행동하는 장면을 본 뒤, A 씨가 없는 상황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다.

핵심 개념

정적 처벌은 어떤 행동 뒤에 불쾌한 자극이 추가되어 그 행동이 감소하는 것이다.
부적 강화는 어떤 행동 뒤에 혐오자극이 제거되어 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다.
관찰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다.
무조건 자극은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반사적 반응을 자동으로 일으키는 자극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A 씨의 천장 두드리기와 윗집의 소음 행동을 따로 보아야 한다.
윗집 행동의 입장에서는 천장 두드리는 소리가 추가되므로 정적 처벌이 된다.
A 씨의 입장에서는 천장을 두드린 뒤 소음이 잠시 사라지므로 그 행동은 부적 강화된다.
딸의 행동은 직접 강화가 아니라 모델의 행동을 본 뒤 따라 한 것이므로 관찰학습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ㄱ의 '부적으로 처벌'이 틀린 표현이다. 천장 두드리기는 윗집 행동 뒤에 불쾌한 자극을 추가한 것이므로 올바르게는 '정적으로 처벌했다'가 된다. ㄴ은 A 씨가 천장을 두드린 뒤 소음이 잠시 멈추었으므로 그 행동이 유지·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② X: ㄱ과 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ㄱ은 위와 같이 '부적 처벌'이 아니라 '정적 처벌'이다. ㄹ의 '무조건 자극'도 틀린 표현이다. 이 사례는 고전적 조건형성이 아니라 조작적 조건형성과 관찰학습의 사례이므로, 층간소음은 A 씨의 행동을 둘러싼 혐오자극이지 무조건 자극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③ O: ㄴ과 ㄷ만 옳으므로 맞는 선택지이다. ㄴ은 천장 두드리기 뒤에 혐오적인 소음이 잠시 제거되어 A 씨의 행동이 부적 강화된다는 점에서 옳다. ㄷ은 딸이 A 씨의 행동을 본 뒤 같은 행동을 했으므로 관찰학습의 결과라는 점에서 옳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맞는 선택지가 아니다. ㄹ의 '무조건 자극'을 올바르게 고치면 'A 씨가 피하려는 혐오자극'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혼동은 처벌과 강화를 한 사람에게만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항은 윗집 행동에는 정적 처벌, A 씨 행동에는 부적 강화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묻는다. 또 '무조건 자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고전적 조건형성 개념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학습 문항은 먼저 누구의 행동이 기준인지 정한 뒤, 그 행동 뒤에 자극이 추가되는지 제거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나누어 본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으면 관찰학습 가능성을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더하면 정적, 빼면 부적, 행동이 늘면 강화, 줄면 처벌이라는 틀로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문 13. 순돌이에게 일어난 일 (가), (나)와 학습절차 A,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순돌이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섭게 달려들면서 짖는 개들을 순돌이는 여러 번 보게 되었고, 결국 모든 개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나) 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개 근처에서 놀지 못하는 순돌이에게 조금씩 개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과자를 주며 칭찬하였다. 그 결과, 순돌이는 개 주변에서 놀 수 있게 되었다.
A: 고전적 조건형성(classical conditioning)
B: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

① (가): A, (나): A
② (가): A, (나): B
③ (가): B, (나): A
④ (가): B, (나): B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적 조건형성과 조작적 조건형성의 핵심 절차를 사례에 맞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전적 조건형성은 원래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이 공포 같은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새로운 반응을 얻게 되는 학습이다.
조작적 조건형성은 어떤 행동 뒤에 강화나 처벌이 주어져 그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 학습이다.
(가)는 개를 보는 자극이 공포 경험과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개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었으므로 고전적 조건형성에 해당한다.
(나)는 개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행동마다 과자와 칭찬을 주어 접근 행동을 강화했으므로 조작적 조건형성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A로 본 점은 맞다. 그러나 (나)를 A로 본 점이 틀리다. (나)는 개에 가까이 가는 행동 뒤에 과자와 칭찬이 주어졌으므로 조작적 조건형성이다. 틀린 표현은 '(나)=A'이고, 올바르게는 '(나)=B'이다.

② O
(가)는 공포를 유발하는 장면과 개가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개 자체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A인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나)는 접근 행동을 강화물로 점차 형성한 사례이므로 B인 조작적 조건형성이다.

③ X
(가)를 B로 본 점이 틀리다. (가)는 특정 행동의 결과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자극 간 연합으로 공포가 형성된 경우이므로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또 (나)를 A로 본 점도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B, (나)=A'이고, 올바르게는 '(가)=A, (나)=B'이다.

④ X
(나)를 B로 본 점은 맞다. 그러나 (가)를 B로 본 점이 틀리다. (가)는 강화에 의해 행동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개와 공포 경험의 연합으로 정서 반응이 형성된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가)=B'이고, 올바르게는 '(가)=A'이다.

오답 포인트

(가)에서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결과만 보고 막연히 행동 변화라고 생각하면 조작적 조건형성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핵심은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개와 공포 장면의 반복적 연합이다. (나)는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보상을 준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강화에 의한 행동 형성이라는 단서를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 반응이나 생리 반응이 자극 간 연합으로 새롭게 형성되면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본다. 어떤 행동 뒤에 보상이나 칭찬이 따라와 그 행동이 늘어나면 조작적 조건형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극과 자극의 연합은 고전적 조건형성, 행동과 결과의 연합은 조작적 조건형성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성격 5요인(Big Five)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해 열린 자세를 지닌 성향을 뜻한다. (가)이 높은 사람은 모험적이고 미적 감수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하며 지적인 탐구심이 강하다. (나)은 자기조절을 잘 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취지향적인 성향을 말한다. (나)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일을 유능하게 잘 처리하며 계획적이고 신중하며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가): 개방성, (나): 성실성
② (가): 개방성, (나): 우호성
③ (가): 외향성, (나): 신경증
④ (가): 외향성, (나): 우호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Big Five 성격 5요인의 핵심 정의를 보고 개방성과 성실성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 상상력, 미적 감수성, 지적 호기심에 열려 있는 성향이다. 성실성은 자기조절, 책임감, 계획성, 질서정연함, 성취지향성을 보이는 성향이다. 외향성은 사교성, 활동성, 긍정 정서가 핵심이고, 우호성은 협동성, 배려, 신뢰가 핵심이며, 신경증은 불안정한 정서와 불안, 예민함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호기심, 새로운 체험 선호,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성, 상상력, 미적 감수성, 지적 탐구심을 말하므로 개방성이 맞다. (나)는 자기조절, 책임감, 계획성, 신중성, 질서정연함을 말하므로 성실성이 맞다.
② X: (가)를 개방성으로 본 부분은 맞다. 틀린 부분은 (나)를 우호성으로 연결한 표현이다. 우호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 협조성, 배려, 온정성을 뜻하고, 제시문처럼 자기조절과 계획성, 책임감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나)는 성실성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를 외향성으로, (나)를 신경증으로 연결한 표현이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활기차며 자극 추구적인 성향이지,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개방된 성향을 뜻하지 않는다. 신경증은 불안, 정서적 불안정, 걱정, 예민함과 관련되므로 자기조절과 질서정연함을 설명한 제시문과 반대 축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가)는 개방성이고 (나)는 성실성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를 외향성으로, (나)를 우호성으로 연결한 표현이다. (가)의 핵심은 사교성이 아니라 경험과 가치에 대한 개방성이고, (나)의 핵심은 대인적 온화함이 아니라 책임감과 계획성이다. 올바르게는 (가)는 개방성이고 (나)는 성실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개방성과 외향성, 성실성과 우호성을 서로 바꾸어 고르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③과 ④는 (가)를 외향성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②와 ④는 (나)를 우호성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제시문에는 사교성이나 대인적 친화성보다 경험 개방성과 자기통제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로움, 상상력, 미적 감수성, 지적 호기심이 나오면 개방성을 먼저 본다. 책임감, 계획성, 자기조절, 질서정연함이 나오면 성실성을 먼저 본다. 사교성과 활력은 외향성, 배려와 협조는 우호성, 불안과 예민함은 신경증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개방성은 열린 경험, 성실성은 정리된 실행이라는 대비로 기억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은?

K가 속한 영업부서는 5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부에서 회사 발전 전략 아이디어를 부서별로 5개씩은 내라고 하였고, 영업 부장은 부서원 중 아무나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했다. K는 '우리 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수는 충분히 채울 것 같은데 굳이 나까지 아이디어를 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①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② 외부귀인(external attribution)
③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
④ 구실만들기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단 과제 상황에서 개인의 기여가 약해지는 현상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영업부서는 50명으로 이루어진 큰 집단이다.
부서 전체가 아이디어 5개만 채우면 되는 공동 과제를 받았다.
K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보고 자신의 참여를 줄였다.

핵심 개념

사회적 태만은 집단으로 수행하는 과제에서 개인의 기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 각자가 들이는 노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핵심 요건은 공동 과제, 분산된 책임감,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K가 과제를 못 해서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 자신의 한 건쯤 빠져도 전체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고 보아 노력 수준을 낮춘 점이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K는 부서 전체가 아이디어 5개만 채우면 된다고 보고 스스로는 가만히 있기로 했다. 이는 집단 과제에서 개인이 노력을 덜 들이는 사회적 태만에 해당한다.
② X: 외부귀인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의 원인을 환경, 운, 타인 같은 외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원인 설명이 아니라 공동 과제에서 참여를 줄인 행동이다. 틀린 표현은 '외부귀인'이고, 올바르게는 '집단 상황에서 노력 감소를 보이는 사회적 태만'이다.
③ X: 이기적 편향은 성공은 내 능력 덕분, 실패는 외부 탓으로 해석하는 귀인 편향이다. K는 성공이나 실패 결과를 해석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은 빠져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틀린 표현은 '이기적 편향'이고, 올바르게는 '타인이 메울 것이라 보고 스스로 기여를 줄이는 사회적 태만'이다.
④ X: 구실만들기 전략은 실패 전부터 핑곗거리나 장애물을 만들어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다. K는 실패에 대비해 변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참여 노력을 줄였다. 틀린 표현은 '구실만들기 전략'이고, 올바르게는 '집단 과제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태만'이다.

오답 포인트

귀인 관련 용어가 함께 제시되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②나 ③으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초점은 원인 해석이 아니라 큰 집단 공동 과제에서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며 실제 기여를 줄인 행동 자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먼저 결과 해석 장면인지, 수행 장면인지 구분한다. 공동 과제 수행 중 개인이 다른 구성원을 믿고 자신의 노력을 줄이면 사회적 태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동 과제에서 책임이 퍼지면 노력도 줄어드는 현상이 사회적 태만이다.

NoteBase

문 16. 스턴버그(Sternberg)가 제안한 사랑의 유형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열정으로 구성되고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친밀감과 헌신이 없는 이 사랑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① 공허한 사랑(empty love)
②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③ 맹목적 사랑(infatuated love)
④ 얼빠진 사랑(fatuous lov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이론에서 열정, 친밀감, 헌신의 조합에 따라 사랑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스턴버그는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요소 조합으로 설명한다.
공허한 사랑은 헌신만 남은 상태이다.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이 함께 있는 상태이다.
맹목적 사랑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헌신은 있으나 친밀감이 부족한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공허한 사랑은 오직 헌신만 남아 있는 사랑이다. 제시문은 '오직 열정으로 구성'되고 친밀감과 헌신이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표현은 공허한 사랑이다. 올바르게는 헌신만 있는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다.
2번 X: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이 함께 있는 사랑이다. 제시문은 친밀감이 없다고 했으므로 낭만적 사랑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친밀감과 열정이 결합되어야 낭만적 사랑이다.
3번 O: 맹목적 사랑은 열정만 있는 사랑이다. 첫눈에 반한 것처럼 강하게 느껴지지만 친밀감과 헌신이 없어 급속히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4번 X: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헌신이 결합된 사랑이다. 제시문은 헌신이 없다고 했으므로 얼빠진 사랑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친밀감 없이도 헌신이 포함되어야 얼빠진 사랑이다.

오답 포인트

열정이 강하다는 표현만 보고 4번으로 가기 쉽지만, 4번은 열정뿐 아니라 헌신도 있어야 한다. 2번도 열정이 들어가지만 친밀감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오직 열정'이라는 문구를 놓치면 틀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턴버그 유형은 먼저 제시문에서 친밀감, 열정, 헌신 중 무엇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표시한 뒤 그 조합을 유형명에 대응시키면 된다. 한 요소만 있으면 단일형, 두 요소가 있으면 결합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맹목적 사랑은 열정만, 공허한 사랑은 헌신만,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열정, 얼빠진 사랑은 열정+헌신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르두(LeDoux)가 제안한 공포의 이중 경로 모델의 예시이다. (가), (나) 현상에 대한 담당 경로 및 주요 특정 뇌 부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숲속을 걷다가 발 아래에 뱀 모양으로 생긴 나무 막대기를 본다면 (가) 화들짝 놀라 동공이 커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며 몸을 움츠리거나 신속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빠르고 본능적인 반응을 준비할 것이다. 한편 (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뱀같이 생긴 막대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포 반응이 사라지면서 평정심이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① 현상: (가), 담당 경로: 아랫경로, 뇌 부위: 대뇌피질
② 현상: (가), 담당 경로: 윗경로, 뇌 부위: 편도체
③ 현상: (나), 담당 경로: 아랫경로, 뇌 부위: 해마
④ 현상: (나), 담당 경로: 윗경로, 뇌 부위: 대뇌피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르두의 공포 이중 경로 모델에서 빠른 자동 반응을 만드는 아래경로와, 자극을 자세히 해석해 공포를 수정하는 윗경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래경로는 감각 정보가 시상을 거쳐 편도체로 빠르게 전달되어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경로이다. 윗경로는 감각 정보가 대뇌피질에서 더 정교하게 해석된 뒤 편도체 반응을 조정하는 경로이다. 이 문항에서 (가)는 놀람, 심박 증가, 도피 준비 같은 즉각 반응이므로 아래경로에 해당하고, (나)는 뱀이 아니라 막대기라고 재평가하여 평정심이 돌아오는 과정이므로 윗경로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아래경로로 본 점은 맞지만 뇌 부위가 틀리다. 틀린 부분은 "대뇌피질"이다. 아래경로의 핵심 부위는 편도체이며, 대뇌피질은 자세한 해석이 개입되는 윗경로와 더 가깝다.
② X: 틀린 부분은 "윗경로"이다. (가)는 뱀처럼 보이는 자극에 즉각 놀라고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장면이므로 빠른 자동 반응인 아래경로가 맞다. 올바르게는 "(가)-아래경로-편도체"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아래경로"와 "해마"이다. (나)는 자세히 보고 막대기라고 확인하여 공포가 가라앉는 재평가 과정이므로 윗경로에 해당한다. 주요 부위도 해마가 아니라 대뇌피질로 보는 것이 맞다. 올바르게는 "(나)-윗경로-대뇌피질"이다.
④ O: (나)는 자극을 자세히 해석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윗경로가 맞다. 이때 대뇌피질의 정교한 처리 결과가 편도체 반응을 조정하여 공포 반응이 사라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공포 반응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든 현상을 편도체 중심의 아래경로로 묶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은 공포의 발생이 아니라 공포의 수정 여부이다. "화들짝 놀람"은 아래경로, "자세히 보니 막대기임을 확인"은 윗경로라는 시간 순서가 함정 해소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반응이 즉각적이고 본능적인지, 아니면 자극을 자세히 해석해 판단이 바뀌는지부터 본다. 즉각 반응이면 아래경로-편도체, 재평가와 수정이면 윗경로-대뇌피질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놀람은 아래경로-편도체, 확인과 수정은 윗경로-대뇌피질이다.

NoteBase

문 18. 샥터(Schachter)와 싱어(Singer)의 정서 이요인(two-factor)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정한 신체 반응 집합은 개인의 독특한 정서 경험들과 대응된다.
ㄴ. 밤늦게 귀가하던 중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요동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두려움을 느꼈다.
ㄷ. 정서 경험에서는 사람들이 미분화된 형태의 생리적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ㄹ. 운동 후 몸의 생리적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평소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던 이성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샥터와 싱어의 정서 이요인 이론이 생리적 각성과 그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샥터와 싱어의 이요인 이론은 정서를 미분화된 생리적 각성과 그 각성에 대한 인지적 명명의 결합으로 본다.
같은 신체 각성이라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려움, 분노, 기쁨처럼 다른 정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정서마다 고정된 신체 반응이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보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ㄴ이 모두 들어 있어 틀리다. ㄱ의 "특정한 신체 반응 집합은 개인의 독특한 정서 경험들과 대응된다"는 진술은 이요인 이론이 아니라 정서마다 고유한 신체 패턴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다. 이요인 이론에서는 생리적 각성이 미분화되어 있고, 올바르게는 "미분화된 생리적 각성이 상황 해석과 결합해 정서가 된다"고 본다. ㄴ도 "심장이 요동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두려움을 느꼈다"처럼 신체 반응이 곧바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서술해 인지적 해석 단계를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그 각성을 위협 상황으로 해석할 때 두려움으로 명명된다"가 된다.
2번: X. ㄱ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ㄷ은 사람들이 미분화된 생리적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므로 맞지만, ㄱ은 특정 신체 반응과 특정 정서가 일대일 대응된다는 취지라서 이요인 이론과 어긋난다. 올바른 조합은 ㄷ과 ㄹ이다.
3번: X.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ㄹ은 운동 뒤 남아 있는 각성을 호감 대상에게 잘못 귀속해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이므로 이요인 이론의 설명과 맞다. 그러나 ㄴ은 생리적 각성에 대한 상황 해석을 빼고 몸의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 된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뒤의 발자국 소리를 위협으로 해석할 때 그 각성이 두려움으로 경험된다"고 보아야 한다.
4번: O. ㄷ과 ㄹ만 포함한 조합으로 옳다. ㄷ은 이요인 이론의 핵심인 인지적 해석의 중요성을 정확히 말한다. ㄹ도 남아 있는 생리적 흥분이 상황 해석에 따라 매력 감정으로 붙는 오귀인 사례이므로 이 이론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ㄱ처럼 "정서마다 고유한 신체 반응이 따로 있다"는 문장과 ㄴ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니 곧바로 그 정서가 생긴다"는 문장은 모두 이요인 이론의 핵심인 인지적 명명을 약화시킨다. 출제자는 이 두 문장을 그럴듯하게 섞어 두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샥터와 싱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생리적 각성이 미분화되어 있는가", 그다음 "상황 해석이나 인지적 명명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고정된 신체 반응과 정서의 일대일 대응만 강조하면 오답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샥터·싱어 = 미분화된 각성 + 인지적 명명 = 정서이다.

NoteBase

문 19. 내담자의 인지적 오류와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개인화(personalization) - (길을 걷는 중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비웃고 있군.”

②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 (친구가 나의 과제발표에 큰 칭찬과 작은 비판을 했을 때) “친구의 칭찬은 의례적인 것이고, 사실은 비판하는 말이 걔의 진짜 속마음이야.”

③ 이분법적 사고(all or nothing thinking) - (시끄러운 장소에서 여자 친구가 옆에 있는 남자의 말을 잘 들으려고 그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그녀는 저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

④ 잘못된 명명(mislabelling) - (오늘 모임에서 내가 친구에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걔는 분명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수할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지적 오류의 핵심 정의를 사례에 적용해 개인화, 과잉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잘못된 명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인화는 외부 사건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남의 행동을 내 탓이나 나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임'이다.
과잉일반화는 한 번의 사건이나 일부 경험을 전체로 확대해 반복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한 번을 늘로 확대'이다.
이분법적 사고는 중간지대 없이 전부 아니면 전무, 성공 아니면 실패처럼 흑백으로 나누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0 아니면 100'이다.
잘못된 명명은 특정 행동이나 실수 하나를 근거로 자신이나 타인 전체에 부정적 낙인을 붙이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행동을 인격 전체의 꼬리표로 바꿈'이다.
마음읽기는 상대의 속마음이나 의도를 근거 없이 단정하는 오류로, ③과 ④ 같은 사례를 가르는 실질 기준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그 웃음을 곧바로 '내 모습을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부 상황을 자신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므로 개인화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과잉일반화'이다. 이 사례는 칭찬은 무시하고 작은 비판만 진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고로, 실제로는 긍정 축소 또는 선택적 추상화에 가깝다. 긍정 축소와 선택적 추상화는 한 장면 안에서 긍정 정보를 깎아내리고 부정 정보만 골라 받아들이는 오류로, 정보의 '선택과 평가'를 왜곡한다. 반면 과잉일반화는 한 번의 사건을 시간과 상황 전반으로 늘려 '항상 그렇다'는 보편 규칙으로 만드는 오류로, 결론의 '적용 범위'를 왜곡한다. 즉 ②에는 한 사건을 전체로 확대하는 시점·범위의 일반화가 없고 단지 같은 장면 안에서 부정만 골라낸 것이므로 과잉일반화가 아니다. 과잉일반화라면 '한 번 비판받았으니 나는 발표를 항상 못한다'처럼 한 사건을 전체 결론으로 확대해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이분법적 사고'이다. 이 사례는 여자 친구가 몸을 기울인 행동 하나를 근거로 '저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속마음을 단정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마음읽기 또는 임의적 추론에 가깝다. 이분법적 사고라면 사람이나 상황을 좋음 아니면 나쁨처럼 극단의 두 범주로만 나누는 형태여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잘못된 명명'이다. 이 사례는 작은 실수 뒤에 친구가 복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상대의 내면과 미래 행동을 단정하는 사고이므로 실제로는 마음읽기 또는 재앙화에 가깝다. 잘못된 명명이라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또는 '걔는 악의적인 인간이다'처럼 한 사건을 근거로 전면적 낙인을 붙이는 표현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오답은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봐야 한다. ②는 '한 번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긍정 정보를 깎아내린 것이고, ③과 ④는 흑백 구분이나 낙인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와 속마음을 단정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왜곡의 방향을 본다. 남의 행동을 나와 연결하면 개인화, 한 사례를 전체 규칙으로 확대하면 과잉일반화, 중간 없이 흑백으로 자르면 이분법적 사고, 한 행동을 인격 전체의 꼬리표로 바꾸면 잘못된 명명이다. 상대의 속마음을 단정하면 마음읽기 가능성을 먼저 의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개인화는 '남의 일을 나에게 돌림', 과잉일반화는 '한 번을 늘로 확대', 이분법적 사고는 '0 아니면 100', 잘못된 명명은 '실수를 낙인으로 바꿈'이다.

NoteBase

문 20. 우울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인지행동치료(CBT)를 적용할 때, 상담자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요소는?

① 우울 정서의 공감 및 수용

② 약물치료를 통한 우울 증상 완화

③ 생애 초기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

④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탐색 및 수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우울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현재의 부정적 인지와 행동을 수정하는 접근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지행동치료는 현재의 정서 문제를 유지시키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비적응적 행동패턴을 찾아 수정하는 치료이다. 인간중심 접근은 공감과 수용을 통한 관계 형성에 무게를 두고, 정신역동 접근은 생애 초기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의 탐색에 무게를 둔다. 약물치료는 심리치료가 아니라 의학적 처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주로 초점'을 우울 정서의 공감 및 수용에 둔다는 표현이다. 공감과 수용은 상담 장면에서 중요할 수 있으나, 이는 인간중심 상담의 대표적 초점에 가깝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주된 작업은 우울을 유지하는 자동적 사고와 행동패턴의 확인 및 수정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약물치료를 통한'이라는 표현이다. 약물치료는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방식이며 CBT 자체의 핵심 기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인지 재구성과 행동 활성화 같은 심리치료적 개입을 통해 증상 완화를 도모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생애 초기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정신역동치료나 정신분석적 접근의 중심 주제이다. CBT는 과거 경험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초점은 현재 나타나는 사고, 감정, 행동의 연결을 파악하고 바꾸는 데 있다.
④ O: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탐색 및 수정은 우울장애에 대한 CBT의 핵심이다. 우울한 내담자는 자신, 세계, 미래에 대해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보이기 쉬우므로, 상담자는 그 사고를 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로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공감·수용, ③의 초기 경험 분석은 모두 실제 상담에서 들을 법한 표현이라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상담자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요소'를 묻고 있으므로, 상담 일반의 태도가 아니라 특정 치료모형의 대표 개입 대상을 골라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치료 접근을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대표 표지를 연결하면 된다. 공감·수용은 인간중심, 초기 경험·무의식은 정신역동, 약물은 의학적 처치, 자동적 사고·인지 재구성은 인지행동치료이다. 우울과 CBT가 함께 나오면 현재의 왜곡된 사고와 행동수정이 정답 축이 된다.

암기 포인트

CBT는 현재의 자동적 사고를 찾아 수정하는 치료이고, 초기 경험의 심층 분석은 정신역동 접근이다.

NoteBase

문 21. 몰개인화(deindividu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기평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② 몰개인화된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③ 익명성 증대를 통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

④ 사회 정체성을 더욱 특출하게 만듦으로써, 내집단 규범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몰개인화의 핵심 특징과, 몰개인화가 항상 반사회적 행동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몰개인화는 익명성과 집단 속 몰입으로 개인적 자기인식과 평가 우려가 약해지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개인 규제력이 약해지고 집단 규범이나 상황 단서의 영향이 커진다.

선지별 해설

1번: O. 몰개인화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존재로 의식하는 정도가 낮아져 사회적 자기평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2번: X. 틀린 부분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단정이다. 몰개인화는 자기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집단 규범이 친사회적이면 친사회적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올바르게는 "몰개인화된 사람들은 상황과 집단 규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도 보일 수 있다"이다.
3번: O. 익명성 증대는 책임감과 자기평가 의식을 낮추어 충동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 성향을 키울 수 있다.
4번: O. 사회정체성 관점에서는 몰개인화가 개인 정체성보다 사회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내집단 규범이 태도와 행동을 더 강하게 이끈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2번처럼 몰개인화를 곧바로 반사회성으로만 연결하면 틀린다. 전통적 설명은 탈억제를 강조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어떤 규범이 활성화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몰개인화 문항은 먼저 익명성, 자기인식 저하, 책임감 약화가 있는지를 본다. 그다음 행동 방향을 단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집단 규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대입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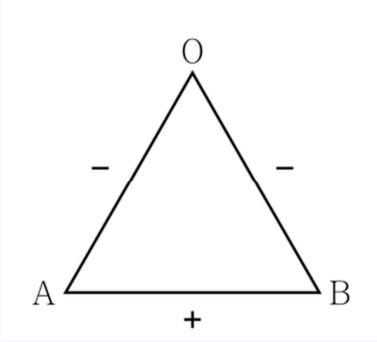
Not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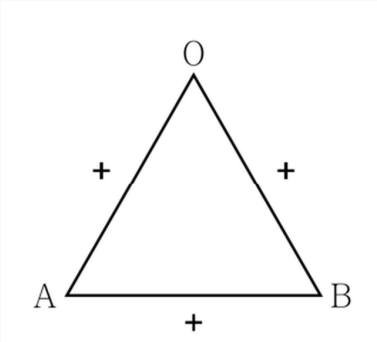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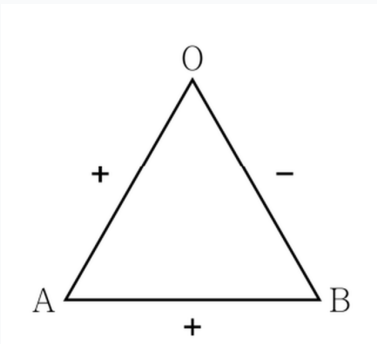
몰개인화는 "나"가 흐려지고 "상황과 집단 규범"이 커지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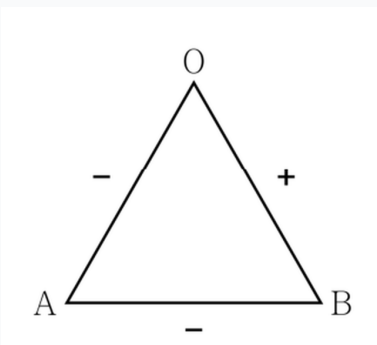
NoteBase

문 22.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관계의 상태가 다른 하나는? (O는 평가 대상이고, A와 B는 사람이며, +는 긍정적 관계, -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이더의 균형이론에서 세 관계의 부호를 보고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O-A가 -, O-B가 -, A-B가 +이므로 부호의 곱이 양수이다. 두 부정과 한 긍정의 조합이라 균형 상태이다. 올바르게는 ①은 다른 것이 아니라 ②, ④와 같은 균형 상태이다.
② X: O-A, O-B, A-B가 모두 +이므로 세 관계가 모두 긍정적이다. 부호의 곱이 양수이므로 균형 상태이다. 올바르게는 ②는 관계의 상태가 다른 하나가 아니라 전형적인 균형 상태이다.
③ O: O-A가 +, O-B가 -, A-B가 +이므로 한 부정과 두 긍정의 조합이다. 부호의 곱이 음수이므로 불균형 상태이며, 다른 세 도식과 상태가 다르다.
④ X: O-A가 -, O-B가 +, A-B가 -이므로 두 부정과 한 긍정의 조합이다. 부호의 곱이 양수이므로 균형 상태이다. 올바르게는 ④도 ①, ②와 함께 균형 상태로 묶인다.

오답 포인트

부호의 위치만 보고 복잡하게 느끼면 틀리기 쉽다. 균형이론은 삼각관계 전체의 부호 곱으로 판단하므로, 부정 관계가 하나만 있으면 불균형이고 부정 관계가 둘이면 다시 균형이 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오답으로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 관계의 +, - 개수를 먼저 센다. 부정이 0개 또는 2개이면 균형, 부정이 1개 또는 3개이면 불균형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균형이론 삼각관계는 부정이 짝수 개이면 균형, 홀수 개이면 불균형이다.

NoteBase

문 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동기 이론의 개념은?

◯ 잘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 능력 및 지능은 고정된 것이다.
◯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수행(performance) 목표
② 숙달(mastery) 목표
③ 예방(prevention) 목표
④ 향상(promotion) 목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행목표, 숙달목표, 예방목표, 향상목표의 핵심 초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수행목표는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좋은 평가나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둔 목표이다. 숙달목표는 능력을 개발하고 과제를 이해하며 실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예방목표는 실패, 손실, 의무 위반을 피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향상목표는 성취, 이득, 발전 같은 긍정적 결과의 획득을 지향한다. Dweck의 암묵적 지능 이론에서 능력과 지능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관점(entity theory, 능력 고정관)은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려는 수행목표와 짝을 이루고, 능력을 노력과 학습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관점(incremental theory, 능력 가변관)은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숙달목표와 대응한다. 그래서 제시문의 '능력 및 지능은 고정된 것이다'라는 단서가 수행목표의 특징으로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잘하는 것을 보여 주려는 초점, 능력과 지능을 고정적으로 보는 관점,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목표를 함께 제시한다. 이는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려는 수행목표의 전형적 특징과 맞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숙달목표와 연결한 점이다. 숙달목표는 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학습과 이해, 실력 향상 자체에 초점을 둔다. 또한 능력은 노력과 학습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쪽에 가깝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예방목표와 연결한 점이다. 예방목표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실패, 손실, 비난, 의무 위반을 피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올바르게는 위험 회피와 책임 이행이 핵심일 때 예방목표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향상목표와 연결한 점이다. 향상목표는 긍정적 성취와 이득 획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비슷하지만, 제시문의 핵심 단서인 '잘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과 '능력 및 지능은 고정된 것이다'는 수행목표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향상목표는 이상, 성장, 성취 획득에 초점을 둔 조절초점 개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결과 지향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는다'만 보면 향상목표로 끌리기 쉽고, '실패를 피한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예방목표로 오인할 수 있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잘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과 '능력 및 지능은 고정된 것이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에서 '보여 주기, 평가, 유능함 입증, 능력은 고정'이 나오면 수행목표로 판단한다. '배우기, 이해, 성장, 노력으로 향상'이 나오면 숙달목표이고, '손실·실패 회피'는 예방목표, '이득·성취 획득'은 향상목표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수행목표는 보여 주기, 숙달목표는 배우기, 예방목표는 피하기, 향상목표는 얻기이다.

NoteBase

문 24. 대인매력(interpersonal attrac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람들은 첫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주 접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인다.

② 우리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③ 유사하다는 느낌이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삶의 모든 영역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

④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수용적인 상대방에게는 호감을 보이고 거부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방의 호감도 평가에서 차이가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인매력에서 단순노출, 신체적 매력, 유사성, 상호호감과 자존감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단순노출효과는 처음부터 강한 거부가 없는 대상에 반복 노출될수록 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유사성은 특히 태도와 가치처럼 관계의 핵심이 되는 영역에서 대인매력을 높인다. 상호호감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단순노출효과는 첫인상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처음부터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지각된 대상에는 반복 접촉이 호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첫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이다. 올바르게는 "처음 반응이 중립적이거나 대체로 긍정적일 때 자주 접하면 호감이 커질 수 있다"이다.
2번: O.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미 좋아하는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후광효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3번: X. 유사성의 효과는 모든 영역에서 똑같지 않다. 태도, 가치관, 관심사 같은 핵심 영역의 유사성이 대인매력에 더 크게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삶의 모든 영역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유사성의 효과는 어떤 영역이 유사한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이다.
4번: X. 상대의 수용과 거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도 중요한 단서이며, 호감도 평가가 전혀 같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대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보고되며, 상대의 호감 표현 여부에 따라 평가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즉 상대 반응과 무관하게 평가가 일정하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방의 호감도 평가에서 차이가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상대의 수용과 거부에 따라 호감 평가가 달라지며, 오히려 그 평가에 더 민감할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단순노출효과를 무조건적 효과처럼 과장했고, ③은 유사성 효과의 영역 차이를 지웠으며, ④는 자존감과 상호호감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인매력 문항은 반복노출인지, 유사성의 영역인지, 상대의 호감 표현인지처럼 작동 변인을 먼저 찾은 뒤 "상관없이", "모든", "차이가 없다" 같은 절대 표현이 과장인지 점검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단순노출은 무조건이 아니고, 유사성 효과는 영역별로 다르며, 상호호감은 상대의 수용 신호에 반응한다.

NoteBase

문 25.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로터(Rotter):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면, 개인의 강화 경험도 알아야 하지만 객관적 가치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ㄴ. 반두라(Bandura): 인지, 행동, 환경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으며, 이를 상호결정론 모델이라 한다.
ㄷ. 미쉘(Mischel): 행동이 보상과 처벌 같은 상황변인과 개인 내적 요소인 개인변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ㄹ. 로저스(Rogers): 개인에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조체계로서 현상학적 장을 강조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터, 반두라, 미셸, 로저스의 핵심 개념을 사회인지적 관점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로터: 행동잠재력은 기대와 강화가치의 함수이며, 강화가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반두라: 인지, 행동,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결정론을 제시하였다.
미셸: 행동은 상황변인과 개인변인의 상호작용으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로저스: 현상학적 장은 개인이 세계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준거틀이며 사회적 참조체계가 아니다.
로저스는 본래 인본주의 심리학자이지만, 일부 교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장을 사회인지적 관점의 넓은 범주에 넣어 다루기도 한다. 다만 이 문항의 ㄹ은 현상학적 장을 '사회적 참조체제'라고 잘못 규정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렸다. 로터는 행동 예측에 기대와 강화가치를 중시했으며, 강화가치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가치이다. '객관적 가치'라는 표현은 '주관적 강화가치'로 고쳐야 한다.
- ㄴ은 옳다. 반두라는 인지, 행동,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고 이를 상호결정론으로 설명하였다.

② X
- ㄱ은 앞서 본 것처럼 틀렸다. 로터의 핵심은 강화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이 기대하는 결과와 그 결과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이다.
- ㄹ은 틀렸다.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세계이지 '사회적 참조체제'가 아니다. '사회적 참조체제'를 '개인의 주관적 참조틀'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ㄴ은 옳다. 반두라는 환경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고, 인지와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 ㄷ은 옳다. 미셸은 행동이 보상과 처벌 같은 상황변인과 개인 내부의 인지적·정서적 변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④ X
-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ㄹ이 틀리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한 현실의 장이다.

오답 포인트

로터의 '강화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바꾸거나,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을 사회적 참조체계로 바꾸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어긋난다. 이 문항은 이론가 이름보다 각 이론이 무엇을 주관적 기준으로 삼는지를 구분하는지가 관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이론 매칭 문항은 학자 이름을 보면 대표 연결어부터 확인한다. 반두라는 상호결정론, 미셸은 상황변인과 개인변인의 상호작용, 로터는 기대와 주관적 강화가치, 로저스는 주관적 경험세계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반두라=상호결정론, 미셸=상황×개인, 로터=기대+강화가치, 로저스=주관적 현상학적 장이다.

NoteBase